

최강국의 저력, 기독교대학

미국의 기독교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며 연구 및 교육 분야 모두에서도 탁월하다. 미국에서의 기독교대학의 역할은 신학과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다른 직업을 추구하려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기관 선택 역할을 한다.

미국의 기독교대학

■ 페퍼다인 대학교

1937년에 사설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페퍼다인대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위치한 전미 50위 명문 크리스천 사립대학교이다. 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재학 중에 적어도 3개의 종교수업을 들어야 하며 기숙사 휴마다 영적인 삶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가 상주 할 정도로 기독교 중심의 라이프를 중시하고 있다.

인문 사회 계통의 학문이 발달 되어 있어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공공행정학, 상담대학 등등 기초 사회과학들이 많이 있는 대학이며 미국의 각 분야에서 페퍼다인대학교의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대학은 입학조건이 까다롭다. 일단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어온 학생이어야 가능하며, 외국인 유학생들도 반듯이 SAT 혹은 ACT 시험을 치러야 한다. ACT 31, 혹은 SAT 1300 그리고 3.6/4.0 GPA가 필요하다. 이 대학에 입학한 한국인 학생의 토플 평균 점수는 100점이 넘는다. 입학합격률이 매우 낮아 전체 지원자의 10%도 채 안되는 대학합격률은 미국 동북부의 아이비리그급이다. 년 \$53,500불이 넘는 등록금은 너무 비싸 해외 유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 휘튼 대학교

이 대학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대학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가운데 자녀를 신앙적 분위기에서 교육하고자 한다면 이 대학을 선택하면 된다. 이 대학은 기독교 분위기 때문에 ‘전도자의 하버드’라고 불린다. 휘튼 대학은 말 그대로 교육의 중심에 기독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학문의 교육은 물론 윤리의 발전도 강조한다.

학생들은 이 대학의 교육을 ‘신앙과 교육의 융합’으로 표현하면서, 캠퍼스 커뮤니티에 비슷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좋다고 말한다. 음주, 마약은 절대 찾아볼 수 없으며 어떤 활동이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리버티 대학교

1971년 침례교 목사인 제리 팔웰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 이념 대학이다. 미국 내에서 크기가 7번째로 큰 대학으로 380개가 넘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 린치버그에 위치한 리버티 대학교의 제리 팔웰 도서관은 유명하다. 미국 언론에서도 꼭 가봐야 할 8대 도서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소그룹 스터디룸과 1인 학습공간 그리고 열린 학습장이

넓게 마련되어 있다. 리버티 대학교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2018년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 2019년에는 펜스 부통령이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였다. 정계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많은 유명인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준다.

2500명의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하며 교수와 학생 비율이 1:24이며 전체 학생의 57%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80% 이상의 학생들이 재정 지원을 받는다. 리버티 대학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SAT나 ACT 점수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유학생의 경우 SAT/ACT 없이 GPA 3.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Honors Program 장학금도 있다.

■ 베일러 대학교

베일러 대학교는 텍사스주 웨이코에 위치한 기독교 사립대학교이다. 1845년 설립된 베일러 대학은 미국 최대 침례교 대학이자 최고 기독교대학 중 한 곳으로 인문 자연 과학대학, 사회복지 대학, 경영 대학, 아너스 칼리지,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교육대학, 컴퓨터 및 공대, 음대에서 학사 125개, 석사 75개 그리고 박사 42개 과정을 제공한다. 2020년 US 뉴스 앤 월드리포트 미 종합대학 순위 79위에 랭크되었으며 기독교 대학답게 매년 150,000시간 이상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베일러 대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고교 내신 3등급 이내와 iBT 토플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4등급의 경우 케이스별로 심사가 진행되며,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은 SAT/ACT는 선택사항이지만 엔지니어링, 프리메디 또는 프리텐탈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 바이올라 대학교

남가주 라미라다에 위치한 바이올라 대학교는 건강한 기독교 교리 안에서 선교를 위한 인재를 양육한다는 이념으로 1908년 설립된 기독교 사립대이다.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독교 사립대인 만큼 보수적인 신학 및 학문 프로그램과 캠퍼스 문화를 자랑한다. 113년 전 설립된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이올라는 여전히 설립 목적인 “Above all give glory to God”을 지키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적 사명을 가진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바이올라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수업은 평균 20명에서 50명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20명 이하의 수업은 48.5% 50명 이상의 수업은 5%를 이루고 있고 학생 대 교수 비율은 14대 1이다.

바이올라는 재학 중 금주하겠다는 항목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대학 원서를 넣을 때 다니는 교회와 교

회의 교단도 확인하는 보수적인 면모를 보인다. 기독교 대학인만큼 모든 수업은 기도로 시작되며 학부생의 경우 전공 상관없이 30학점의 성경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매 학기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채플에 일정 횟수 참여해야 한다.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기독교적인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태일러 대학교

태일러 대학교는 인디애나 주 소재의 기독교 사립대로 보수적인 기독교(초교파) 정신에 입각하여 교원의 전체, 또 학생들의 절대다수가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1846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오래된 기독교대학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경건주의 대학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 편의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으로 학생 다수가 자기 차량을 보유한다. 특히 한인 학생들은 Pre-medicine 과정을 통해 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에 추후 진학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전공의 인기가 급부상하면서 컴퓨터 과학과 전기공학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전공에서 특출난 학생들은 NASA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체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 데이비스 대학

1837년 미국 장로교에 의해 설립된 데이비스 칼리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데이비스에 있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다. 이 대학은 유에스 뉴스 리버럴 아츠 칼리지 랭킹 17위의 명문대학이다.

캠퍼스에는 학생 주도의 기독교 단체 10개가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이 단체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대학은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다양한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제공하는데, 주일날에는 기독교 예배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한 주일 내내 가톨릭 등 여러 종교 종파에게 예배와 미사 시간을 제공한다.

데이비스 칼리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전공은 pre-med 계열의 생물학, 영문학, 정치학이며 데이비스 칼리지는 역사적으로 동문 자녀들의 입학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교로 알려져 상당히 엘리트주의적인 면도 강한 캠퍼스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데이비스 칼리지에서는 오래된 ‘Honor Code’라는 전통이 있다. 바로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옳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험, 도서관 이용, 연구 등이 자율과 무감독으로 이루어진다.

로잔이여! 담대히 선포하라

-선교적 교회로의 갱신을 위한 로잔대회를 기대하며

로잔운동은 복음주의 선교의 동력을 되찾고 선교적 정체성을 재발견하기 위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후 1989년 마닐라,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각각 2, 3차 대회를 이어가며 로잔언약, 마닐라 선언문, 케이프타운 서약을 통해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총체적 선교를 제시했다.

제1차 대회는 1974년 7월16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50여 개국 2,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복음화대회가 열렸다. 이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급진적 에큐메니칼 선교론에 대한 철저한 복음주의적 선교론을 정립하는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에큐메니칼 진영이 1968년 뮌헨대회에서 선교의 목표 자체를 '복음화'에서 '인간화'로 바꾸고, 1973년 방콕에서 열린 WCC의 세계선교위원회(CWME)에서 선교의 핵심내용인 구원의 개념 자체를 '영혼 구원'에서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 개념으로 바꾼 것이 로잔의 시작이었다고 본다.

이것이 1974년 로잔대회로 모일 필요가 되었다. 이것은 혼합화 가운데 다시 복음의 선명성을 선포하는 '복음'이기도 했다. 물론 중간에 2차 로잔회의에서 신사도 운동가들을 수용함으로 다소 치우칠 우려를 자아냈으나, 선언적 내용에서 걸리냄으로 정체성을 유지해왔다고 본다.

이 로잔운동은 세계복음연맹(WEA)과 세계교회협의회(WCC)로 나뉘어 양극화 현상을 띄고 있는 세계교회 가운데서 복음의 정통성의 깃발을 든 소중한 컨퍼런스였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기초로 한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어느 편이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하는 전략을 만들자고 출발한 운동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면서 제3차 로잔대회에서는 선교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여 공의를 구현하는 것과 생태학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다하는 것도 선교의 사명이라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종교를 용납하고 회심을 강요하지 말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다.

최근 제4차 인천 로잔대회를 앞두고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국제로잔이 제시한 총체적 선교를 내세워 전통적 복음 전도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더 치중하는 선교개념의 변화에 대하여 특별한 대안 없이 이 기초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점에 한국의 몇몇 선교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면은 매우 균형을 찾아야 할 정체성 지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상황은 동성애차별금지법으로 17년 동안 집요하게 국회에서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복음의 뿌리를 갈아 먹을 심각한 내면의 위기를 몰고 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인본주의적 포용주의 관점으로 수

용, 외면, 덮고 나간다면 로잔의 존재 의미는 없어진다.

2022년 미국 세인트필립스에서 20년 넘게 인간생물학을 가르쳐온 존슨 바키 교수가 "성별은 X·Y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이를 들은 학생 4명은 항의하듯 강의실을 빠져나갔고 이후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키 교수는 지난 1월 학교 부총장으로부터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바키 교수는 이로부터 2주 후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종교적 설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 낙태 반대 및 여성 혐오적 발언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학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조차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혐오 발언으로 간주한 것이다.

bbc는 바키교수가 적절한 항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키 교수는 "2003년부터 1500명 넘는 학생에게 인간의 생식 기능에 대해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왔는데 부정적 반응을 경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며 "학교 측에서는 내게 항변의 기회나 소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도 부정하는 동성애 이데올로기의 광풍이다. 동성애적 매카시즘이 몰아치는 것에 인간혁명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인류와 자신들의 가정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차별법'을 동성애 혐오세력으로 때도하고, 추구하는 것은 배후의 한국교회의 선교적 트리거를 묶으려는 사단의 꾀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파괴를 넘어 교회 파괴 운동이고, 선교파괴의 핵이기 때문이다. 남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전11: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로잔 50주년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만큼 한국교회는 부요해졌다.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 현안에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 중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전 세계의 불확실성의 증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더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이다. 한반도는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의 정치 외교학자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의 군사정치 예측율은 무려 80%에 달한다. 그는 2030년대 한반도의 통일을 예견했다. 7천만 인구대국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몰락으로 인해 힘의 공백으로 통일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북공정으로 왜곡된 동북3성에 큰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는 고무력, 발해 옛 지역과의 연대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는 만주지방경제권이 통일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가능성까지 예견하는 것이다.

사실 프리드먼의 예견이 아니더라도 지난 10년간 우리는 강력한 오른손의 다섯 손가락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았다. 배터리(전기 및 수소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국방무기, 신 건설엔지니어링 등 결정적인 선교 방아쇠가 한반도에서 준비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과 열방 선교를 향한 전 초항인 인천에서 개최하는 로잔회의는 의미심장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인본주의 광풍 속에서 로잔이 갖는 가치를 세우려면 분명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상당수 교회까지 동성애 문제에 대해 신앙의 자유를 차별로 몰아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놀랍게도 침묵으로 혹은 동조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로잔은 무슨 답을 할 것인가?

4차 로잔대회에서 반성경적인 문제들과 용어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마지막 방파제를 무너뜨려서 선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집요하게 국회에 올라오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선명한 선언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로잔회의가 존재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첫 회의 빌리그레함재단이 주최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대인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로잔운동이 인간의 다양한 필요들을 채우려다가 WCC가 범한 인본주의적 선교로 나갔던 실수의 길을 밟지 않아야 한다. 국제로잔이 대회를 거듭할수록 당초 설립 취지였던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 퇴색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중이 앞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에 거룩한 통찰력을 보여야 한다. 복음의 선명성을 훼손하는 교묘한 인본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타협이 아닌 거룩한 복음의 가치를 들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수록 그것은 선교의 논점은 흐려지기 때문이다.

국제로잔은 너무 많은 선교과제로 인해 '복음 전도'라는 우선순위와 핵심사명을 상실하게 되어 WCC처럼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근 10년 이래 전쟁과 기근, 난민 사태 등이 가속화됐고, 신학적이고 선교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이슈가 매우 많아졌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백문일답을 좋아한다. 대학생 때 김준곤 목사님이 외쳤던 모든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한국교회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세계미전도종족, 선교타임즈,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 '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중국, 왜 역사 왜곡을 계속하나?

중국은 한복을 중국 의복에 포함하려고 하고, 아리랑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버렸다. 막무가내식 중국의 '한국의 것' 빼앗기가 있을 때마다 '동북공정' 수식어가 붙는다. 동북공정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역사적 의미를 알아야 중국의 뻔뻔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

중국의 역사왜곡 '동북공정'

중국 동북공정의 이론적 토대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 정부 수립과 함께 많은 소수 민족을 편입했다. 중원 왕조만 중국사로 설정하는 종전의 화이론(華夷論)에 따르면 수많은 소수 민족의 역사를 독립 역사로 다뤄야 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현재의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중국사의 범주를 설정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고안한 뒤 무수한 소수 민족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했다. 중국은 1979년 이전까지만 해도 고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한국 고대사의 나라들을 한국사로 봤다. 그런데 1990년대 북한이 체제 위기로 내몰리자 고구려사에도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적용해 중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을 추진했다. 중국의 동북지역은 지린성(길림성), 랴오닝성(요녕성), 헤이룽장성(흑룡강성)을 말한다. 우리에게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淸)을 세운 만주족의 고향, 만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이다.



중국은 국가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공식적으로 진행된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동북 3성에 등장했던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연구하고 수많은 보고서를 쏟아냈다.

문제는 그들이 연구한 역사가 한국 고대사의 주축을 이루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라는 것이다.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민족들이 중국의 민족이고 그들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것이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중국은 왜 동북공정을 주장하는가?

동북 3성의 지린성의 옌볜에는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 조선족은 분리·독립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母)국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국경과 마

주하고 있고 한국에도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조선족이 한반도와 너무 가까이 있는 게 문제이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옌볜에 모여들어 조선족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도 신경 쓰이고, 한국에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도 못마땅하다. 본래 조선족은 재외동포로 등록되지 못했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많아지면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도 대상자가 되었다.

특히 지린성의 간도는 조선 후기 조선인들이 건너가 개간한 곳으로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간도관리사까지 파견하면서 우리 영토로 관리했던 지역이다. 1909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중국과 간도협약을 맺고 중국에 넘긴 후 우리는 간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간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조선족의 정체성도 문제지만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인들의 '잃어버린 땅'이라는 인식도 매우 위협하게 여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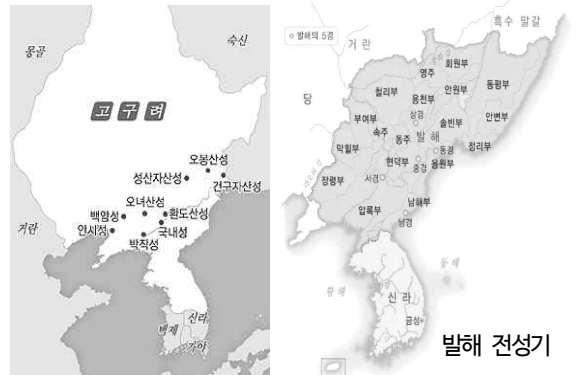
고구려를 이어받은 발해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약 700년간 존속해왔다. 훌륭한 사냥, 기마기술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를 호령하였으나 서기 668년, 결국 당나라에 의해 무너졌다. 고구려의 멸망으로 인해 고구려 장수의 아들이었던 대조영은 아버지와 함께 당나라로 떠나야 했다. 당나라 땅 영주라는 곳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대조영은 당나라와 돌궐이 싸우는 틈을 타서 조용히 고구려 유민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영주 땅에는 고구려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갈족과도 힘을 합쳤다. 대조영은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이 지난 698년

당나라를 떠나 고구려의 옛 땅인 요동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이름을 '진국'이라고 불렀으며 713년에는 나라 이름을 '발해'로 바꾸었다. 발해의 건국은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째, 만주 지역을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로 유지시켰다. 당시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었지만 고구려 영토의 많은 부분은 통일 신라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발해의 건국으로 인해 옛 고구려 땅이었던 만주 지역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지역으로도 우리 민족의 세력을 확장해 갈 수 있었다. 둘째,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혼을 만주 땅에 심어 주었다.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라고 하였으며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무예를 소중히 여기며 큰 꿈을 품은 민족이었다. 셋째, 흩어져 있던 고구려의 유민들을 하나로 모았으며 말갈, 거란 등 다른 민족도 받아들여 큰 나라를 만들었다.

전성기 고구려 영토 내 산성



제나라, 고구려후예가 세움

중국에는 서기 765년부터 819년까지 4대 55년간 당나라와 맞서며 산둥반도 일대를 장악했던 독립국가 있었다. 바로 고구려 유민 이정기(732~781)가 세운 평로칭왕국이다. 이정기 장군을 시작으로 이

납·이사고·이사도 장군 등 4대에 걸쳐 산둥반도를 장악, 최대 15주에 이르는 영토를 차지했다. 고구려가 망한 지 100년이 지나 이정기 왕국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과 낙양 등을 위협하는 제국으로 성장했다. 그것도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등을 앞세워 중국 본토에 최초로 설립한 나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중국의 정사로 꼽히는 '신·구당서' '자치통감' 등은 당나라는 제나라를 회유하기 위해 수시로 이정기와 그의 후손들에게 관직을 내렸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중국의 역사 왜곡	
2002	중, 고구려 등을 '중국 지방 정부'로 편입하는 동북공정 시작
2004	-중, 고구려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환런·지안 등 유적에 '중국의 지방정권'이란 안내문 게시. -한·중 정부, 고구려사를 정치문제화하지 않겠다는 '5개 구두 양해사항'에 합의.
2016	바이두 백과사전에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를 중국사의 나라로 서술하는 작업 완료
2017	시진핑 중 주석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했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함
2020	소위 '한북공정'과 '김치공정' 논란 불거져
2022	-베이징 올림픽 개최식의 조선족 한복 논란 -중국 국가박물관, 한·중·일 청동기전의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발해 삭제

미래 세계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다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은 자신의 책에서 2030년 한반도는 남한 주도 남북통일이 되고 10년의 혼란기를 거쳐 중국 동북지역 옛 고구려 지역까지 복속하게 된다고 예측하였다. 프리드먼의 예측은 미래학자 중 가장 근접하는 예측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40년 통일국가 이룰 것

세계 최고 지정학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는 조지 프리드먼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한국은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이전보다 더 큰 번영을 이룰 것을 전망했다.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코소보 전쟁과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예견하여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린다.

미국방부는 매일 얼리버드라는 조간 브리핑에 그가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세계정세를 읽고 주요 국가의 발전 과정을 속속들이 분석하여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는 것이 특징으로 다른 예언들과 달리 신빙성이 높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2040년경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예측했다. 2040년이 되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이룰 놀라운 역사 변전을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링폴리시” 특집으로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나라 GUTS를 발표했다. G는 독일, U는 U.S.A, T는 터키, S는 South Korea이다. 나라별로 미래 세계를 이끌어 갈 나라들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2040년경 한국이 자유민주통일국가를 이룩하고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으로 부지런한 근면성과 적극적인 열정이고, 둘째는 교육열이다. 한국 부모들의 희생적인 교육열을 어느 민족 나라도 추종 불가하다 했다. 교육열은 빈부의 차 계급성이 없이 누구나 교육받고 발전할 기회이다. 부모들은 논밭을 팔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녀들의 발전 성공을 위해 헌신, 희생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셋째는 기술 창의성이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원자력 등 기술 창의성은 세계 최고이다. 교육의 평등 기회

와 소망에 전력하는 창의성에서 기술발전 기적을 이루어 내고 있다. R&D 기술개발 정책이 세계 최고인 나라가 한국, 독일, 미국, 일본이라 한다. 넷째는 해외동포 네트워크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 될 때 세계 186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국 해외동포 700만이 한인연대를 발휘하는 네트워크의 영향력이다. 다섯째는 한국 기독교 교회이다. 기독교 전래 130년 동안 기독교 교회는 사회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 한국이 되면 한국 기독교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독교가 구라파 시대에서 미국 시대 그리고 통일 한국시대로 이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물리적 위치는 ‘최악’이라고 말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시한폭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세가 멈추게 되면 중국의 대북지원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한국과 북한이 10~20년 내로 통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때쯤이면 통일 한국을 반대할 나라가 없고 한국은 북한의 자원, 값싼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 자본이 결합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일본이 한 가지 거슬려 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통일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도 자신들이 미국과 최우방국이라 주장하며 극우세력은 미국은 공산화되는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미국이 경제 성장의 주요한 통로로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만큼 한국에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자리를 한국이 선점해 미국과 막강한 동맹을 맺는다는 이러한 예측에 대해 ‘미국이 친중 국가인 한국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조지 프리드먼은 2010년에 쓴 그의 저서 <100년 후>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였다. 2030년 한반도는 남한 주도 남북통일이 되고 10년의 혼란기를 거쳐 중국 동북지역 옛 고구려 지역까지 복속하게 된다는 예측이다. 그리고 세계 G2에서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내일의 그림을 그려 발표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은 대부분 한반도가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듯 통일 역시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세계 3대 투자가 ‘집 로저스’는 한국이 향후 20년 내에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조지 프리드먼
(George Friedman/
1949년)

조지 프리드먼은 헝가리 태생의 미국 군사정치전문가이다.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국제정세 분석가로 정세 분석에 있어 놀라운 적중률로 인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린다. 뉴욕 시립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코넬대에서 정부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미 국방부 장기전략 싱크탱크 ONA, 미 육군 국방대학, 미 국립국방대학, 랜드 연구소 등에서 안보와 국방 문제 주제로 강의와 자문을 수행했다. 조지 프리드먼은 현재 지정학적 관점에서 국제 체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매체인 지오폴리티컬뷰처스를 설립하고 회장으로 있다. 저서로 <백스트 디케이드> <100년 후> 등이 있다.

AI로 사라질 직업이 고소득 전문직?

과거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도입이 주로 저학력 및 중간소득 근로자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최근 AI 기술이 인지적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면서 고소득 전문직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의 보고서는 AI와 관련된 특허를 바탕으로 AI 기술이 수행 가능한 업무가 특정 직업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집계해 ‘AI 노출 지수’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인 ‘병을 진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AI 특허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한 뒤, 여기에 특정 직업의 업무에서 해당 업무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대체 가능성을 판단해 보았다. 세부 직업별로 봤을 때 일반 의사와 한의사의 AI 노

출 지수가 상위 1% 이내에 들었다. 전문 의사(상위 7%), 회계사(19%), 자산운용가(19%), 변호사(21%) 등도 상위권이었다.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화학공학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 장치 조작원,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등도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속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기에 적합한 직업들이다. 반면에 성직자(하위 2%), 대학교수(하위 1%), 가수나 경호원(하위 1% 이내) 등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직업에 속했다. 이들 직업은 대면 접촉이나 관계 형성이 필수적인 직업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고생산성 산업을 중심으로 AI 노출 지수가 높은 반면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 서비스업은 AI 노출 지수가 낮았다.

향후 5년간 나타날 새로운 직업과 사라질 직업
(2023~2027 기준)

	새로운 직업	사라질 직업
1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 전문가	은행 창구 직원 및 관련 직원
2	지속 가능성 전문가	우체국 직원들
3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석가	계산원 및 매표원
4	정보 보안 분석가	데이터 입력 담당자
5	핀테크 엔지니어	행정 및 집행 사무국
6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자재 기록 및 재고 보관 사무원
7	로봇 공학자	회계, 부기 및 급여 담당자
8	빅 데이터 전문가	국회의원 및 공무원
9	농업 장비 운영자	통계, 재무 및 보험 사무원
10	디지털 혁신 전문가	방문 판매, 뉴스 노점상

자료 출처: WEF(세계경제포럼), Future of Jobs Report 2023. 05

하마스 땅굴, 먼 동네 얘기가 아니다

가자지구 지하에 파놓은 방대한 터널인 '가자 지하철'의 파괴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의 주요 목표이다. 하마스는 수년간 인구가 밀집한 가자지구 비밀 터널을 이용해 무기와 지휘시설, 전투기들을 숨겨왔다. 무장세력의 탐지를 피할 수 있도록 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이나 학교, 기타 공공건물 맨 아래층에 입구를 뚫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민간인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

하마스의 땅굴 요새는

하마스는 가자지구 지하에 전 세계에서 면적 대비 가장 촘촘한 터널망을 구축해 왔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망의 총 길이가 약 500km라고 추정한다. 광대한 터널망이 한국의 세종시보다 작은 가자지구(총 면적 약 365km²) 아래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이스라엘군이 파악한 터널망 지도를 보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북부 가자시티 주변이 특히 촘촘하며 이는 남부 칸유니스까지 뻗어 있다.

하마스는 지난 수년 동안 지하 터널에 탄약과 무기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연료와 식량, 의약품도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은 성인 남성이 고개만 살짝 숙여도 이동할 수 있고 내부에서 몇 달씩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단원들은 물론 차량과 군수품까지 옮길 수 있는 '전략적 터널'이다.

하마스가 파놓은 지하 터널은 지상 구조물 아래를 지나도록 세심하게 배치돼 있다. 가자지구의 뻗뻗한 도시 구조가 지하 터널을 겹겹이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폭탄과 로켓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벽을 뚫고 나서는 두 번째부터 파괴력이 줄어든다. 두꺼운 지하 병커를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전용 폭탄도 있기는 하지만 지하 터널망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개당 수백만 달러인 비싼 폭탄을 퍼붓기는 힘들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지상 작전 시작 이후 땅굴 약 130여 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모든 땅굴을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땅굴의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한 데다 출입구가 병원이나 주거용 건물, 모스크 지하에 숨겨져 있어 찾기 어렵다.

하마스땅굴 북한 기술 제공

북한은 오랜 기간 하마스에 군사 지원을 해왔다. 특히 이스라엘이 6~8m 높이로 가자지구를 둘러싼 분리 장벽을 건설하자, 이를 피하는 '땅굴' 건설에 북

한 기술이 투입됐다. 하마스는 이집트 시나이반도나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땅굴을 다수 파놓고 이스라엘군과 쫓고 쫓기는 '두더지 게임'을 벌여왔다. 북한은 땅굴 건설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 과거 미얀마 군부 등에 장비와 기술,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다. 북한은 1970~1980년대 간첩이나 특수부대원의 남파를 위해 휴전선 비무장 지대(DMZ) 일대에 땅굴을 파며 이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즈볼라 및 하마스에 전수될 만큼 북한의 땅굴 굴착 기술은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스라엘군은 2014년 하마스가 구축한 30여 '땅굴 네트워크'를 확인했는데 배치 형태나 구조 등이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북한 땅굴과 흡사해 화제가 됐다.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땅굴 전방위 공략법

가자지구를 둘러싼 장벽을 중심으로 깊이 지하 약 70m, 총연장 500~800km로 알려진 하마스 땅굴은 이스라엘군 통신망이 닿지 않고 안팎에 설치된 부비트랩(폭발물 함정)이 많아 과거 교전 때마다 이스라엘군의 발목을 잡아 왔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교전을 반면교사 삼아 하마스 땅굴 공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알려졌다. AI·드론(무인기)·특수부대·화학무기 등 전방위적인 공격을 땅굴을 파손하기 위해 퍼부었다. 가장 먼저 투입된 '병력'은 로봇 부대였다. '스로봇(throwbot)'이라고 불리는 정찰용 로봇과 소형 트럭 로봇 등을 가자지구에 침투시켜 땅굴 위치를 파악했다. 이 로봇들은 땅굴에 침입해 이스라엘군의 침입을 막으려 설치된 부비트랩을 미리 폭발시키는 역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폭발을 피하지 못한 하마스 병력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 로봇들은 지형 파악을 위한 AI 기술을 탑재해 땅굴 내부 물체·사람을 감지하며 '스마트(영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로봇들이 '1차 정찰'을

마치고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한 땅굴엔 이스라엘군 특수공병대 '아함롬(다이아몬드·정예라는 뜻)' 부대가 투입됐다.

지상에선 대형 전투용 불도저인 'D9R 불도저'가 땅굴 입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았다. '테디베어'란 별명으로도 불리는 D9R은 폭발물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장갑으로 무장돼 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땅굴 무력화를 위해 '스펀지 폭탄'을 활용하고 있다. 화학무기 일종인 스펀지 폭탄은 금속 칸막이로 분리한 두 화학물질이 섞여 거품 형태 물질이 터널 안에서 폭발하고 곧 단단히 굳어져, 하마스 통로를 막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늘의 폭격기는 지하 수십m를 단숨에 뚫고 땅 아래에서 폭발하는 '병커버스터'를 가자지구 곳곳에 투하해 땅굴 매복 병력을 사살하고 통신망을 파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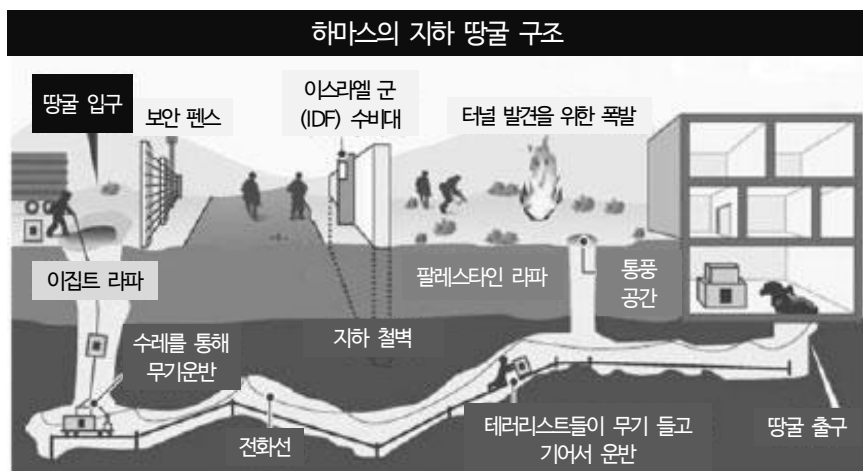
전쟁의 복병, 땅굴

방어용으로 만든 땅굴은 현대전쟁에서도 계속 활용된다. 최신에 폭격기, 탄도미사일, 무인기(드론)로 아무리 폭격을 가해도 땅굴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특히 약소국들 입장에서는 장기 항전을 위한 요새로 지어졌다. 1970년대 미국의 충격적인 패배로 결말이 났던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가장 지치게 만든 것은 바로 '땅굴'이었다. 오늘날의 베트남 호치민시의 관 광명소가 된 '구찌땅굴'은 당시 북베트남군의 기나긴 땅굴 요새의 흔적을 보여준다. 원래 이 땅굴은 1946년 프랑스 식민지 치하에 놓여있던 베트남의 독립전쟁 당시부터 만들어졌다. 베트남 전역에 걸쳐 무려 250km 구간에 만들어졌는데, 비좁은 통로로 인해 키가 큰 미군들은 드나들 수조차 없는 매우 좁은 땅굴이다. 곳곳에 함정이 설치돼있어 미군들은 이를 제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미군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땅굴 저항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해발 4000m 이상 산맥이 둘러싼 아프가니스탄 동부 토라보라 지역에 땅속 350m까지 파고 들어간 일명 '탈

레반 땅굴'은 미군의 폭격기는 물론 지하구조물 폭파 무기인 병커버스터까지 무력화시켰다.

한국군도 북한군의 땅굴 작전을 경험한 바 있다. 북한군은 1970년대부터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쳐 모두 20개 이상의 남침용 땅굴을 굴착했으며 한국군은 이 가운데 4개를 발견해 장악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땅굴은 재래식 전투에서 아직도 긴요하게 이용하는 작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저 출산율에도 키즈시장 뜨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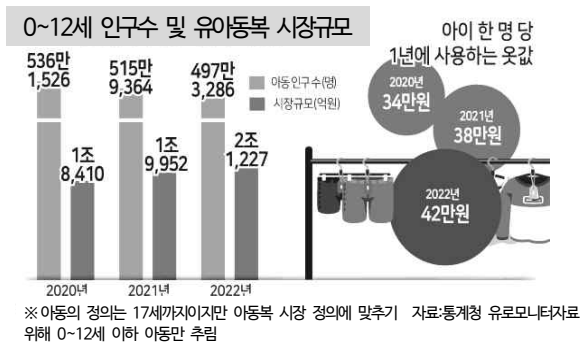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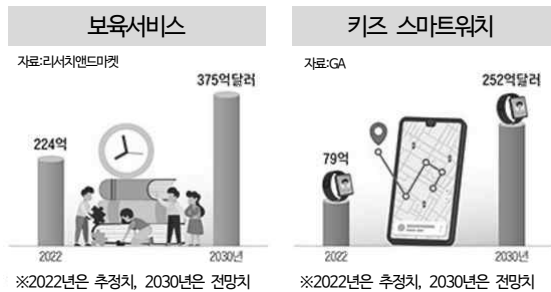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1명도 안 되는 출산율을 기록한 데 이어, 같은 해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 역시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이러한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도 국내 키즈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를 적게 낳는 대신 한 명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 소비를 아끼지 않는 밀레니엄 세대 부모들의 성향 때문이다.

저출산 속 알파 세대 등장

한국이 매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아용품 시장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골드키즈’ 열풍으로 자녀에게 명품을 사 주려는 MZ세대 부모들의 심리 때문이다.

‘골드키즈’라 불리는 현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값비싼 프리미엄 아동복을 입히는 MZ세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3040 세대가 늘면서 ‘텐 포켓’이 더 심화하고 있다. 텐 포켓은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힘을 합쳐 한 명의 자녀를 위해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텐포켓 베이비 현상과 맞물려 지난해 아동복 시장도 럭셔리·고기능성 라인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디올, 루이비통 등 명품브랜드는 이 같은 현상을 겨냥해 키즈·베이비 라인을 속속 출시했다. 디올은 600만 원이 넘는 유모차, 에르메스는 100만 원대의 베이비 선물세트 등을 선보였지만 해당 제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디지털에 진심인 알파 세대

알파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함께한 ‘디지털 온리’ 세대다. 이들은 글자를 배우기 전부터 화면을 넘기거나 버튼 클릭하기를 먼저 체득하며 직관적으로 기술을 습득한 기술 친화적 세대로 불린다. 유례없는 저출산 시대에 태어나 스마트폰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환경에서 자랐고, 이른바 ‘워라벨’ 같은 여가 중심형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접해왔다. 알파세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AI 스피커뿐 아니라 로봇, 드론 등의 기기는 금방 습득한다.

알파세대는 자본주의 논리에 밝은 밀레니얼 부모 아래 학업이나 특기 교육을 넘어 경제·투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아이가 ‘에듀테크’ 교육환경을 몸소 체험한 점도 인상적이다. 에듀테크란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빅데이터나 AI 등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한다. 알파세대는 이런 기술을 활용한 AI 학습지 공부에 매우 익숙한데, 이는 MZ세대가 경험한 ‘인강 인터넷 강의’와는 다르다.

알파세대는 확실히 기존에 없던 시장을 만들고 있다. 주로 알파세대를 키우는 30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2022년 기준 51.3%로, 2013년 41.5%에서 대

우 증가했다. 부모 모두 일하는 사이 육아 부담을 덜어준 건 교육, 보육, 케어 서비스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알파세대를 겨냥한 육아, 서비스, 앱 경제구조를 약 55조 원으로 추산하며 ‘새로운 맘 이코노미’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의 이들 부모 세대 인구는 약 300만 명, 시장규모 약 10조 원으로 추정된다.

알파 세대가 이끄는 키즈테크

유아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교육과 놀이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을 증명하듯 교육 및 놀이 콘텐츠는 막강한 정보기술력과 접목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인 키즈 액티비티 플랫폼 ‘애기야가자’는 2020년 애플리케이션으로 본격 서비스에 돌입했다. 2022년 누적회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12%, 거래액은 523% 증가, 장소 확인수는 1600만을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 관련 키즈테크의 대표적인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의 ‘클래스101 키즈’에는 요리나 미술과 같은 일상적인 취미부터 부동산, 경제까지 100개 이상의 다양한 키즈 클래스가 등록되어 있고 (2022년 4월 기준), 거래액도 직전 해와 비교해 20배 가량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인구소멸위험지역) 전국 89곳



지난해 인구 증가 TOP5 지역

시군구	2021년 인구수	2022년 인구수	증가 인구수
인천광역시 서구	555,380	589,013	33,633
경기도 화성시	887,015	910,814	23,799
경기도 평택시	564,288	578,529	14,241
경기도 파주시	483,245	495,315	12,070
세종특별자치시	371,895	383,591	11,696

자료: 국가통계포털, 단위: 명



출처: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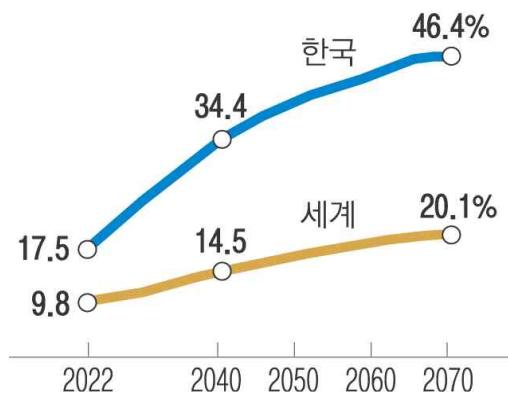
급증하는 노령층, 시니어타운이 답?

국내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버타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여생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니어타운과 요양원, 요양병원의 차이

	시니어타운	요양원	요양 병원
시설 구분	주거 시설	요양 시설	의료 시설
입소 자격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받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의료 처치·요양 필요
의사 상주	×	×	○
정부 비용 보조	없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세계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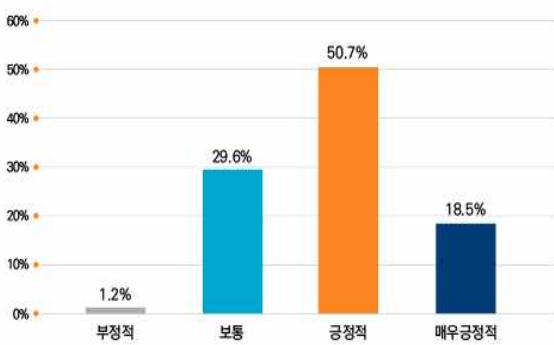


인구 중 고령자 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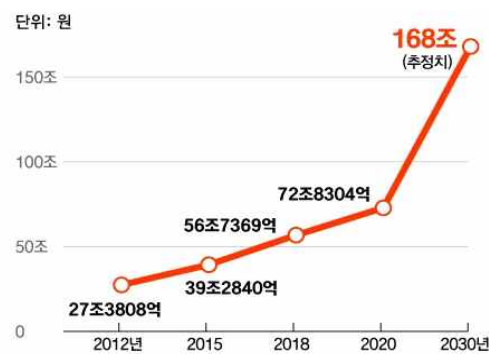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중장년층 실버타운 거주에 대한 의향



출처: 한경머니

실버 이코노미 국내 시장 규모 변화



자료: 경희대 김영선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에선 이미 UBRC 성업 중

UBRC(대학 연계형 은퇴자 커뮤니티)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시니어 주거단지로 대학의 장점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학교가 사업 주체가 돼 은퇴자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고 대학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은퇴자 커뮤니티와 대학교 둘 다 나날이 효과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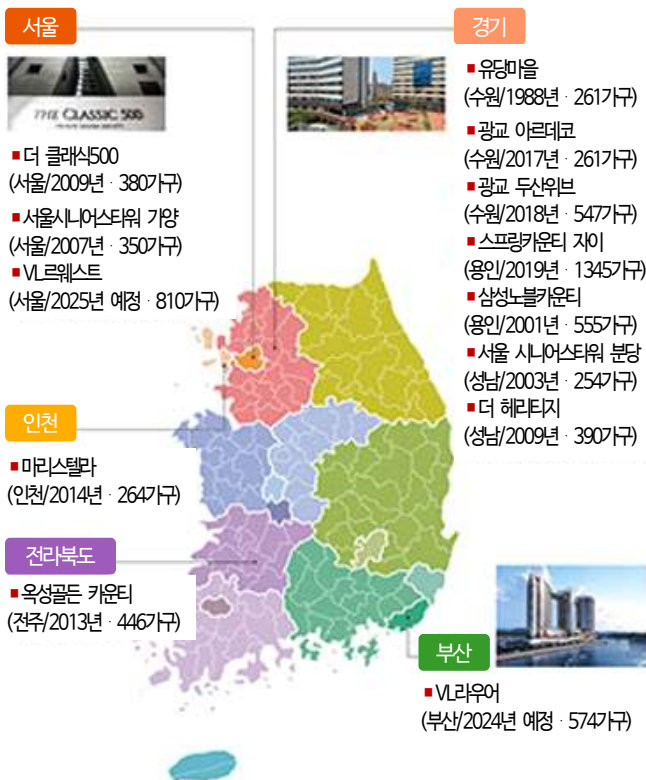
- 바이트펠로앨토 스탠퍼드대
- 유니버시티커먼스 미시간대
- 라셀발리지 라셀대
- 캔달앤티카 코넬대
- 더발리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 성삼자마을 노트르담대
- 마라벨라 애리조나주립대
- 오크해머 플로리다대

미국 세계 첫 UBRC, 1980년대 시작해 2023년 현재 100여 곳 운영
한국 미운영, 확산 기를 마련 ('교육에 지장 없으면 대학 유휴 부지 차분 허용, 2023년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자료: 이코노미조선 정리

※ 미국 주요 UBRC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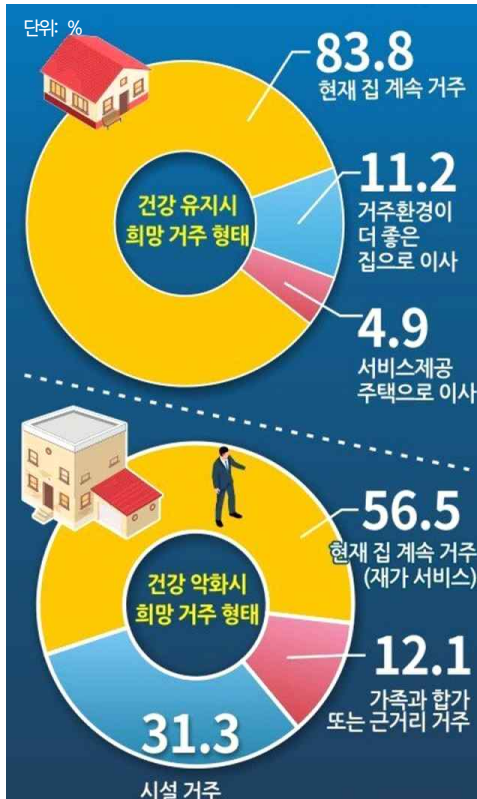
한국 시니어타운 수도권 편중 심각



※ 2022년 2507가구 이상 수용 국내 시니어타운. 괄호 안은 위치, 개원 연도, 2022년 입주 가구 수 · 입주 예정 시설 포함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출처: 이코노미조선

한국 노인의 희망 거주 형태



자료: 보건복지부

주요 선진국 시니어타운

미국	CCRC(연속보호체계형 노인주택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부터 건설사 주도 확산 - 자립주거(IL) · 생활보호주거(AL) · 너싱홈 등으로 구성
일본	유료 노인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부터 본격 확산 - 돌봄 서비스 범위 따라 간호형 · 주택형 · 건강형으로 분류
독일	알텐체트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텐분하임: 독립적인 생활(자립)이 가능한 노인 대상 ■ 알텐하임: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체적 보조, 케어 동반 대상 ■ 알텐플레게하임: 요양병원과 같은 개념, 장기간 지속적인 케어 필요 대상 포함하는 복합시설



피부색의 유전학은 진화를 부정한다

피부색은 3개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그 수는 135개로 밝혀졌다.

인체 해부학 및 생리학 분야에서 관찰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신체는 더욱 복잡하고, 진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피부, 머리카락, 눈의 색깔은 단지 3개의 유전자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믿고 있었다. 이 3가지 유전자들은 각각 빛을 흡수하는 멜라닌이라 불리는 색소의 양을 조절한다. 이 유전자들은 어두운 피부 대립유전자(A, B, C)와 밝은 피부 대립유전자(a, b, c)의 두 가지 형태를 보인다. 멜라닌은 머리카락과 피부의 색깔, 특히 갈색, 빨간색, 검은색의 색조를 만들어낸다. 회색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전체에 걸쳐 멜라닌이 거의 없다. 흰 머리카락에는 멜라닌이 전혀 없으며, 색소가 없는 모발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인다. 멜라닌 색소의 주요 기능은 암을 유발하는 자외선(UV)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표피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다.

멜라닌은 멜라닌세포(멜라닌형성세포)라고 불리는, 멜라닌을 생성하는 색소세포의 내부에 있는 소기관인 멜라노솜에서 생성된다. 모든 사람은 같은 수의 멜라닌세포를 갖고 있다. 단지 멜라닌을 생성하는 멜라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피부와 모발의 색깔은 매우 다양하다.

수십 년 동안, 멜라닌 생성은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는 멜라닌세포 효소에 의해서 색소가 분비되는, 단순한 과정이라고 여겨져 왔다. 멜라닌은 오랫동안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멜라닌은 자외선 조사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피부와 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신경세포를 독성물질로부터 보호하고, 내이(inner ear)에서 소리 전도에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다. 멜라닌 생성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피부 질환(기미, 백반증 등), 안과 질환(노인성 황반변성), 신경장애 및 청각장애가 발생한다. 또한 척추동물에서 멜라닌세포는 피부 색소침착, 털 및 깃털의 착색뿐만 아니라, 주변 각질 세포에 멜라닌 생성 및 분배하는 능력에서도 중요하다.

새로운 연구

지금까지 어떻게 멜라닌의 양이 다르게 생성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스탠포드 의과대학 화학 및 시스템 생물학과 연구자들은 CRISPR-Cas9(유전자 편집, 3세대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여, 2만 개 이상의 유전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여, 세포를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한 다음, 멜라닌세포들에서 멜라닌 생성 제거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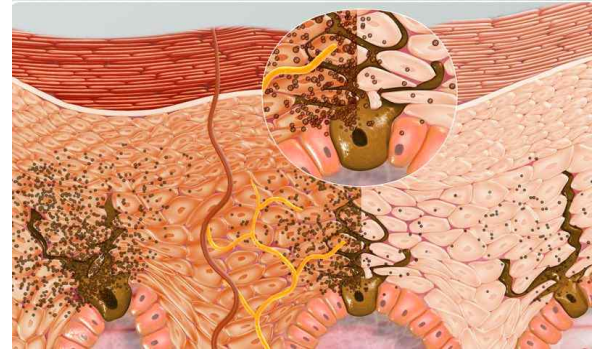
닌세포에 빛을 통과시킴으로써, 멜라닌세포의 멜라닌 생성 활동을 감지하고, 정량화했다. 멜라닌 생성 활동은 세포 내부의 멜라닌에 의해 빛이 흡수되거나 산란되는 정도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멜라닌을 생성하는 멜라노솜이 멜라닌이 많은 세포에서는 빛을 더 많이 산란시키기 때문에 관찰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유세포분석의 측면산란을 사용하여, 멜라닌 수준에 따라 세포들을 분리했다. 그리고 세포들을 분석하여, 멜라닌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의 정체를 확인했다. 인간의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유전자들과 이전에 알려진 유전자들 모두가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멜라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으로 다양한 169개의 유전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135개는 이전에 색소침착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새로 발견된 유전자 중 하나는 멜라노솜의 산도(acidity)를 조절하여, 멜라닌 합성을 조절하는 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였다.

지구의 적도 인근 지역과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는 사람들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더 짙은 색소침착이 필요하다. 직사광선에 적게 노출되거나,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멜라닌이 더 적게 필요하다. 적은 멜라닌은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비타민 D 생성에 햇빛이 필요하므로 중요하다. 비타민 D는 신체의 칼슘 흡수를 돕고, 낙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이는 튼튼한 뼈를 만들기 위해서, 성인은 튼튼하고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임상 응용 분야에는 백반증(멜라닌이 소실되어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멜라닌 조절 약물의 사용이 포함된다. 이 연구의 다른 목표에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내이의 소리 전도에서 멜라닌의 역할을 포함하여, 멜라닌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선탠

선탠(sun tanning)은 그림처럼 멜라닌 생성에 변화를 일으킨다.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선탠을 통해 햇빛에 반응하지만, 일부 사람, 특히 어두운 피부색의 사람은 햇빛에 대한 보호 기능이 유전적으로 더 강하다. 피부가 어두울수록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 어두운 피부색의 사람도 햇빛에 탈 수 있지만, 보호 기능이 더 강하고, 손상이 발생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어두운 피부색을 갖고 태어난 사람의 경우, 몸 전체가 그림의 왼쪽에 표시된 것과 비슷하다. 모든 유전자는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멜라닌 생성은 선탠의 결과, 즉 햇빛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 그림의 왼쪽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오른쪽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외선 차단 색소가 멜라닌세포에서 생성된다. 가운데가 검은색인 갈색의 세포는 멜라닌세포의 위치를 나타낸다.

가능하다. 유일한 예외는 기미나 백반증과 같이 돌연변이가 시스템을 손상한 경우이다. 멜라노솜의 크기와 수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유전적이다 :

같은 신체 부위에서, 밝은 피부의 멜라닌세포와 어두운 피부의 멜라닌세포의 수는 비슷하지만(신체 부위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색소 함유 소기관이 밝은 피부 세포에 비해 어두운 피부 세포에 더 크고, 더 수가 많고, 더 많은 양의 색소를 갖고 있다. 이는 최근 조상이 각각 아프리카, 아시아, 또는 유럽 출신의 개인과 부합한다.

사람마다 특정 유전적 차이는 한 유전자, 또는 최대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 제어되지만, 멜라닌 생성 시스템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여하는 모든 유전자가 필요하다.

곰팡이와 박테리아에서 멜라닌 생성은 여러 이유로, 감염되는 인간이나 작물에 더 강한 병원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연구자들은 곰팡이와 박테리아들의 멜라닌 생성 유전자를 발견하고 파괴함으로써, 이러한 미생물의 감염과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할 수 있다.

요약

이전에 다양한 색조의 갈색 피부를 생성하는 선탠은 “단순한” 과정으로 가정됐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한 것으로 밝혀졌다.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새로 확인된 135개 유전자 대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유전자들은 멜라닌 생성뿐만 아니라, 인체 작동 과정에서 다른 여러 기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한때 “단순한” 것으로 생각됐던, 무작위적 돌연변이에 의한 이러한 시스템의 진화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되었다.

(창조과학회 제공)



열반의 다이제스트

美, 북한 출신 K-팝스타 'SB 보이즈' 내년 데뷔

북한 출신 래퍼가 내년 K팝 아티스트로 미국 데뷔를 앞두고 있다. 그룹 이름은 'SB보이즈'다. 13살 때 한국으로 건너와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탈북자 유혁(23)은 함경북도 경성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물건을 훔치거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다. 12살이 되던 해 떨어져 살던 어머니가 찾아와 탈북을 권유했고, 어머니를 따라 이듬해 서울에 발을 디뎠다. 3살 이후 떨어져 살던 어머니와 거리감을 느껴 혼자 살기로 결정했고, 2년 후 아버지의 부고까지 전해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이때 학교 선생님이 국어와 시에 관심을 보이는 유 씨에게 랩 가사를 써보도록 제안했고, 유 씨는 이를 계기로 랩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된다. SM엔터테인먼트의 조미셀 대표는 'SB 보이즈'라는 그룹명으로 멤버를 구성하고 있는데 유 씨가 첫 멤버로, 또 다른 북한 출신 김석 씨와 중국계 미국인 에릭 하오(활동명 케니)가 합류했다. 'SB 보이즈'는 내년 미국 데뷔를 앞두고 있으며 멤버 두 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소말리아, 6주째 폭우... 수재민 177만 명

소말리아에 6주째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177만 명이 피해를 보고 41명이 사망했다. 유엔 구호기관인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소말리아에서 지난 6주간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41명에 달하며, 그중 12명은 어린이라고 전했다. 집을 떠나 대피한 수재민 수는 64만 명이 넘는다. 소말리아 전국의 도로와 교량, 비행장이 파괴되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막고 있으며 그 때문에 기초 생필품 등 물가가 크게 폭등했다. 수인성 전염병 이질과 콜레라도 발생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한동안 전염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연말까지 겨우 6주를 남긴 시점에서 소말리아에 대한 2023년도 유엔 구호기금이 약정액의 40%밖에 들어오지 않아 현금 부족을 겪고 있다. 이번에 소말리아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日, '성인용 기저귀' 처리 골치... 초고령사회의 고민

일본 자치단체가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성인용 종이 기저귀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체 쓰레기양은 줄었지만,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는 증가 경향이 뚜렷하다.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등에 따르면 2015년 폐기량은 208만 톤으로 전체 쓰레기양의 4.7%였으나 2020년에는 5.2%로 늘었고, 2030년에는 6.6%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 폐기량이 아동용의 감소분을 뛰어넘었다. 기저귀는 소변에 젖어 있어 소각 처리가 어려워 더욱 고민을 깊어지게 만든다. 기저귀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소각로 화력을 높이기 위한 조연제를 투입해야 하는데, 조연제 사용은 소각로 손상의 원인이 되며 가격도 비싸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저귀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플라스틱이나 펄프, 고급수성 수지로 만들어진 기저귀는 회수한 뒤 세척하거나 고형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활용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는 35곳에 불과하다.

北, 고체연료 활용 중거리탄도미사일도 개발

북한이 고체연료를 활용하는 새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개발 중이며,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을 개발하고 1계단(단계)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분출시험을 11월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ICBM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약 11개월 만에 새로

공개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이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 주입 시간이 짧아 미사일 노출 가능성을 줄이고 기동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그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는 고체연료를 활용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올해 4월에는 ICBM인 '화성-18형'에까지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해 시험 발사했다. 사용된 엔진은 지난해 12월 첫 시험 사실이 공개된 엔진으로 보인다.

K-웹툰, 해외에서도 드라마로 모셔가기

한국 웹툰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잇따라 드라마 원작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카카오펀터테인먼트는 "웹툰 지식재산권(IP)인 'N번째 연애'를 대만 제작사가 현지 드라마로 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드라마 출시 시점은 2025년 말이 목표다. 국산 웹툰이 안방인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드라마로 제작되는 건 이례적이다. N번째 연애는 카카오펀터에서 2018~2019년 게시돼 누적 조회수 1억3000만 회를 넘긴 로맨스 만화다. 카

카오웹툰 원작인 '이태원클래스'의 대만드라마도 12월에 제작에 들어간다. 네이버웹툰 '내 ID는 강남미인'은 내년 초 태국 드라마 방영이 목표다. 콘텐츠 업계에선 인기 웹툰을 영상 콘텐츠로 재가공하던 국내 트렌드가 동남아 시장에서도 자리잡았다. 마스크걸, 무빙 등 웹툰 기반 드라마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흥행 실적을 쌓으면서 해외 제작사들도 웹툰 실사화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육아용품 물가...양육비 부담 증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 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서비스 중 6개 품목의 올해 1~10월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3.7%)을 웃돌았다. 11개 품목은 분유, 이유식, 유아동복, 유아용 학습교재, 아동화, 종이 기저귀, 장난감, 유모차, 유치원 납입금, 보육시설 이용료,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이다. 1~10월 유아동복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1% 상승하면서 상승 폭이 가장 컸

며, 아동화 값도 지난달까지 6.3% 올랐다. 같은 기간 기저귀값 상승률도 9.6%를 기록, 10%에 육박했다. 2020년을 끝으로 육아물가지수 연구·개발이 중단된 뒤로 지금까지 범정부 차원의 육아물가 관리는 따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유치원·보육시설 비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육아 상품·서비스 물가는 별도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항생제 처방, OECD 평균 이상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 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 당 16.0DDD(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OECD 38개국 평균(13.1)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항생제를 비교적 적게 처방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7.2), 네덜란드(7.6), 독일(8.1)이었다. 반면 항생제를 많이 쓰는 국가는 그리스(21.7), 프랑스(19.3),

폴란드(18.8)였다. 항생제는 세균의 성장을 막거나 죽이는 물질로 감염병 등의 치료에 이용된다. 그러나 항생제를 오남용할 경우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생겨 적절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에 따라 처방해야 한다고 OECD는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숨졌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찬바람 불면 더 아픈 류머티즘 관절염

겨울이 되면 손가락 마디나 무릎, 어깨 등이 쑤시는 류머티즘 관절염 통증이 심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낮은 기온이나 기온 차에 따른 류머티즘 관절염 통증 변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겨울철 온도와 기압, 일조량의 변화가 통증을 더 악화시키거나 더 심하게 느끼게 한다는 가설이 있다. 겨울철 외출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내복과 장갑, 목도리, 모자 등을 꼼꼼하게 챙겨 건강에 유의하도록 한다.

류머티즘 관절염이란

류머티즘 관절염은 관절 퇴행이나 외부 바이러스의 침투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 면역력의 기능 변이 현상으로 인해 관절에 염증과 통증이 나타난다. 면역체계가 스스로 몸을 공격하는 질환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어려워 난치병으로 구분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으로 몸 안의 면역세포가 자기 자신의 관절 조직을 스스로 공격해 지속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며 관절 연골이 손상되고, 폐나 심장, 신장 등과 같이 모든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대한류머티즘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의 26%가 심혈관계 질환, 15%가 내분비 질환, 5.6%가 호흡기 질환 등 동반 질환을 겪고 있으며,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중 약 40%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염증과 통증은 염증을 억제, 통증을 완화하는 항생제 치료로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엔 면역력의 회복 없이는 완치할 수 없다. 치료 시간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오래 걸리고 차근차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류머티즘 관절염이 발병하면 2년 내에 관절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 초조할 수는 있지만, 기본부터 확실하게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류머티즘 관절염 Q&A

Q 류머티즘 관절염은 불치병이라는 데 정말인가?

A 류머티즘 관절염은 비록 치료가 어려운 병이지만, 불치병은 아니다. 100%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최근 다양한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병도 완치할 수는 없지만, 약물 등을 통해 혈압이나 당을 조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조금 어렵지만, 류머티즘 관절염도 꾸준히 조절할 수 있다.

Q 류머티즘 관절염은 왜 아침에 더 아픈가?

A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기압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껴 흐리거나 비 오거나 하는 기압 변동이 있는 날씨는 더 아프게 된다.

Q 류머티즘 관절염은 유전이 되나?

A 이 질환의 원인에 유전적 소인이 어느 정도 있지만, 어머니가 류머티즘 관절염이라고 해서 자녀에게도 꼭 류머티즘 관절염이 유전되지는 않는다.

Q 류머티즘 관절염을 조기에 발견할 방법은 없나?

A 미리 알 수 있는 증상은 관절통 이외에 심하게 날씨가 민감해지거나 눈병이 잦고, 피부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생기거나, 입안이 자주 헐고, 손가락이 시리고 색이 변하거나, 원인 모르게 피곤한 것 등이

있다. 그밖에도 혈액검사로 미리 관절염 여부를 진단해 볼 수도 있다.

Q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

A 평생은 아니지만 1년, 2년 혹은 수년 동안 치료해야 한다.

Q 입이 마른다, 당뇨가 맞나?

A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은 염증세포가 침범해 침범해서 타액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침이 잘 나오지 못해 입이 자주 마른다. 류머티즘 관절염의 흔한 증상이다.

Q 물리치료를 하는 데 왜 좋아지지 않나?

A 류머티즘 관절염은 여러 가지 약물요법 혹은 면역요법으로 치료한다. 관절의 기능이나 근육의 힘 혹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 혹은 운동요법도 같이해야 하지만 면역의 이상을 치료하지 않고 단순히 물리치료만으로 치료되지 않는다.

Q 잠이 잘 안 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A. 여성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서 우울감과 수면장애가 일반인보다 많다. 류머티즘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나 동반되는 우울감 때문이다. 또한 복용중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해서도 불면증이 유발될 수 있다.

■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의 겨울철 주의사항

- ① 근무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내의, 장갑, 모자 등 체온 유지에 주의해야 한다.
- ② 단, 너무 두껍게 옷을 입으면 땀이 나거나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 ③ 규칙적 운동이 필요하다.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과 힘줄이 굳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 ④ 활동량이 줄고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체중이 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류머티즘 관절염	분류	퇴행성 관절염
몸의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전신질환	정의	노화, 스포츠 손상 등에 의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찢어지는 질환
주로 30~40대, 여자:남자 비율이 3:1	호발 연령	45세 이상, 75세 이상의 노인 80%에서 발견
자가면역질환, 가족력 등	원인	노화, 가족력, 사고, 비만 등
손목과 손가락 사이 관절, 발의 작은 관절 등	부위	주로 무릎관절, 어깨, 고관절, 손가락 끝마디 등
양쪽 같은 관절에 대칭적	대칭성	한쪽 관절에 비대칭적
피로감, 관절강직과 통증, 체중감소, 미열, 안구건조, 입마름, 폐렴, 심막염 등	증상	관절통증, 뼈의 돌출, 심하면 'O'자형 다리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게 굳 으면서 통증 발생	통증 양상	관절을 사용할수록 통증 악화, 휴식을 취하면 완화
증상진찰,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진단	신체검사, 방사선 검사
주로 항류머티즘 약물치료	치료	체중조절, 자세교정, 근육 강화 운동, 물리치료, 약물치료, 수술



류머티즘 관절염에 좋은 음식

생선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 연어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생선은 류머티즘 관절염의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혈액순환이 원활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에 관절을 튼튼하게 해준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항산화제와 섬유소, 비타민이 함유되어 류머티즘 관절염에 좋다. 칼슘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항암효과도 있다.

체리 체리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머티즘 관절염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한다. 체리에는 딸기,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안토시아닌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항

염증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배출해 심혈관 질환 예방, 세포의 노화를 막아준다.

시금치 시금치에는 엽산과 철분, 망간,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시금치를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의 항산화제 농도를 25%나 올리게 된다. 비타민K가 풍부해서 골격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류머티즘 관절염에 좋다.

사과 중간 크기의 사과 1개에는 일일 섭취 권장 섬유소가 25%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변비 예방에도 좋고, 암이나 알레르기, 염증, 알레르기 등과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다.

성에 대해 성경적 다림줄을 내리다

2017년 8월 20일 내슈빌에서 개최된 남침례교윤리와종교위원회 연차 총회에서, '성서적 남성성과 여성성 위원회(이하 CBMM)'는 복음주의 리더, 목회자, 학자들의 회합을 열고 토의를 거친 뒤 선언문을 발표했다. 미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천 리더 150명이 서명한 선언문으로 CBMM의 공동 창립자인 존 파이버 목사는 내슈빌 선서를 인간의 성에 관한 '기독교 선언'이라 불렀다. 이 선언문은 결혼은 남녀의 결합이며, '동성애적 부도덕'은 죄라는 믿음을 선포한 것이다.

내슈빌 선언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시편 100:3)

21세기 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전환의 때에 살고 있다. 서양 문화의 탈기독교화가 더욱 증가하면서, ‘인간됨’의 의미에 대한 거대한 변경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우리 시대의 정신은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거나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는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서 인격적인 육체로 지음 받은 사실도 포함돼 있음을 부인한다. 남성과 여성으로서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가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 선호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안에서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근시안적인 길로 대체됐고, 이 길은 곧 인류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세속적인 영은 기독교회에 큰 도전을 가져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경적인 확신, 명확함,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 시대의 영과 섞일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기로 부끄럼 없이 그분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선포할 것인가? 교회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 반문화적이고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나갈 것인가?

우리 세대의 신실함이란 세상의 진리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기독교의 성경은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인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쳐준다. 모든 이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기쁜 마음과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충성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를 잊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알지 않고는 우리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알 수 없다. 남성과 여성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는 어리석음 뿐 아니라 절망적이다.

우리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구원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가져준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선한 계

획은 우리에게 최고의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기독교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성(sex)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확정하기로 했다.

제1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남편과 아내로서 언약적, 성적, 생식적으로 평생 연합하도록 설계하셨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예시한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동성 간, 일부다처/일처다부 또는 다부다처의 관계로 설계하지 않으셨으며,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 계약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이다.

제2조 모든 사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혼외 순결과 혼인 중 정절이다. 어떠한 호감, 욕구, 약속도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를 절대 정당화시키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성적 부도덕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제3조 하나님께서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도록 창조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녀차이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존엄성이나 가치 면에서 불평등해지지 않는다.

제4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녀차이는 하나님의 본래 창조 계획을 반영하고, 이 차이는 인류의 선과 번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차이는 타락의 결과나 극복해야 할 비극이 아니다.

제5조 생식구조상의 남녀차이는 남자/여자라는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필수적이다. 신체적 이형 또는 심리상태가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성과 남자/여자라는 자아개념이 연계되도록 정하심을 파괴하지 못한다.

제6조 선천적 성(性) 발달장애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지들”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신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환영받으며,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생물학적 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의 생물학적 성이 모호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즐거이 헌신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제7조 남자/여자라는 자아개념은 창조와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동성애적 또는 성전환적(트랜스젠더) 자아개념을 수용하는 것은 창조와 구원에 대한 하

남의 거룩한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제8조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값지고 열매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본연적 선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의 소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제9조 죄는 성적 욕구를 왜곡시켜 결혼의 언약을 버리고 성적 부도덕을 지향하게 만든다. 이 왜곡에는 이성애적 그리고 동성애적 부도덕 모두가 포함된다. 성적 부도덕을 향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해서 성적 부도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제10조 동성애적 부도덕이나 성전환주의를 용인하는 것은 죄이며, 이러한 용인은 기독교적 신의 및 증언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동성애적 부도덕이나 성전환주의를 용인하는 것을 도덕적 무관심으로 넘길 수는 없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용인을 거부해야 한다.

제11조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남자/여자로서 서로에게 또는 서로에 대하여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를 모욕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책무도 거부한다.

제12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로운 용서와 변화의 능력을 주시며, 이 용서와 능력은 예수님의 제자가 죄의 욕구를 죽이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적 죄악들을 용서하며, 성적 죄악에 끌림을 느끼는 모든 신자에게 성경의 능력을 주기에 충분하다.

제13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이 성전환적 자아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성과 남자/여자라는 자아개념이 연계되도록 정하심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맞지 않는 자아개념을 인가(認可)하지 않는다.

제14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 사함과 영생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원자, 주님 그리고 최고의 보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주님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주님의 손길이 닿지 못할 죄인도 없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비율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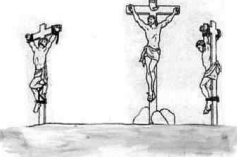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4			12			13
					13				
2	2		9	6			11		
				17					
3			18			10		9	
	4	3							
				8				16	15
5									
			7				14		
6					15				

-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돈을 넣고 지정된 단추를 누르면 사려는 물건이나 차표 따위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기계
- 기 따위를 걸어 드러내기 위하여 높이 만들어 놓은 대
- 세상일의 어려운 고비를 다 겪어 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어떤 일의 지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중요한 부분
-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
- 생물의 몸에 영양을 좋게 하는 성분
-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
- 척추동물의 가슴이나 배속에 있는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긴장이 풀려 마음을 다잡지 않고 놓아 버림

-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높이 만든 대
- 쾌, 불쾌 등의 감정을 느끼는 상태
- 모임에 들어가서 회원이 되기 위해 내는 돈

<지난 11월호 정답입니다>

아	시	안	게	임			가	계	부
우				명			수		당
성	찬	식		장	의	사			거
		목				설	왕	설	래
		일	회	용			복		
대	여			수	채	화			손
타		지	하	철	수		기		자
협	조	문				분	양	권	
	감		탈	의	실		로		사
	도	시	락		중		원	두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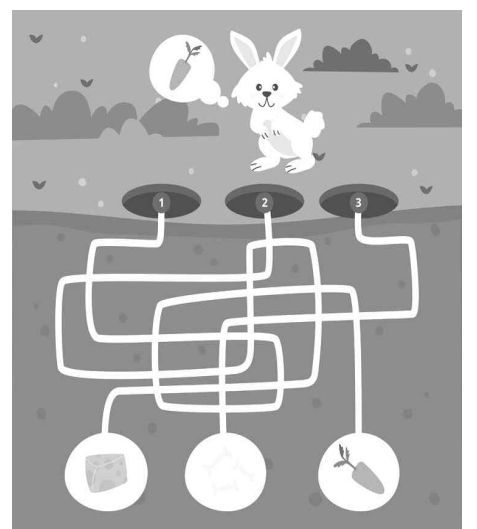
가로문제

-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일반적으로 여느 해의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상태
- 책을 팔거나 사는 가게
- 문학 작품이나 그림, 조각 따위의 예술품을 창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제일 비싸게 부른 사람에게 팔
-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료하고 공중 보건을 향상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구, 시, 군에 설치한 공공 의료 기관
-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 착하게 됨
- 세상에 태어난 날
- 물체나 평면의 모가 진 가장자리

세로문제

- 어떤 이가 살아오면서 이룩한 학업이나 종사했던 직업 따위의 발자취를 적은 문서
- 갈수록 점점 더 좋거나 재미가 있음
- 차표나 입장권 따위를 파는 곳
- 어떤 일을 치르고 난 뒤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 웃거나 말을 할 때 볼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자국
- 괴로움이나 어려움 등을 참고 견디어 내는 마음
- 말리거나 절이지 않은, 잡은 그대로의 성한 물고기
- 이동성을 가진 정보 통신 수단의 모든 것을 이르는 말
- 주로 피로하거나 나른할 때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것
- 일정한 용도로 쓰고 남은 나머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벽에 붙이거나 바닥에 세워 놓고 글, 그림, 사진 따위를 붙여 여러 사람이 두루 보게 하는 판
- 큰 산들이 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줄기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하반기 블레싱 전도축제 ■ 11월 12일



◀추수감사발표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실버스쿨
권사회수련회▶



비전목장(이진/오정은 부부)

◀사업장심방
연합순예배▶



경인목장



삼산목장

차세대



중등부/미니 올림픽



유년부/야외 축구



초등부/생일 잔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늘 굴곡 없이 평범한 믿음 생활을 하던 중, 중3 때 서울로 온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면서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부가 워낙 인원이 적었고 교만한 제 눈엔 믿음이 올바른 서 있지 않은 형제들보다 믿음은 없지만 착한 세상의 남자와 결혼해 전도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결혼이 급했던 남편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는 약속을 하면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제가 예측하고 계획한 길과는 전혀 다른 수렁에 빠진 느

낌이었습니다.

늘 술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남편은 점점 교회와 멀어졌고 이로 인해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끝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광야의 시간 동안 후회와 눈물 외에는 답이 없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 하는 저를 하나님은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셨고 결혼 생활의 방향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물었을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나의 회유와 협박에도 변하지 않던 남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나쁜 습관들도 하나하나 끊어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삶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남편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습니다. 저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어서 결단하고 다짐해도 또 나약해 여러 가지 미혹에 넘어지지만 혼자 아님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축복해주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응원하며 기도하는



삼산목장
김선혜집사

믿음의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며 앞으로 믿음 1세대인 제 남편을 통해 시댁 어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희를 도구로 쓰시리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하신 이 말씀이 저희 시대와 지금도 눈물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께 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C3TV 인터넷 방송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본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본당
주일	1부	오전 9:00	지하1층 본당
	2부	오전 11:15	지하1층 본당
	3부	오후 2:00	지하1층 본당
	4부(청년예배)	오후 4: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주일랜드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2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20	3층 조이랜드홀
	중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국제사역	고등부	오전 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주소: (우) 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전화: 032) 501-9686~7

•Fax: 032) 503-9686

•http://www.wwch.or.kr

2023 하반기 세이레 기도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 계3:8

열린 축복문의
주인공이 되라11월 26일 (주일) ~
12월 16일 (토)월~금: 오후 8시
토: 오전 11시 본당주강사
박인용 목사
월드와이드교회 담임11.29(수)
안종배 교수
국제미래학회 회장
대한민국 인공지능포럼
공동회장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2.6(수)
최상규 장로
분당샘물교회시무장으로
세일 아이앤씨 대표
선한울타리 설립자12.14(목)
소유정 전도사
전주포도나무교회
협동전도사
무형문화재 제49호
가야금병창 전수 장학생
저서[하나님과 동행]

2024 신년축복성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 시편 3:8여호와여 복을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2023.1.1(월)-4(목)

매일 저녁 8시 / 본당

블레싱메신저 : 박인용목사 (월드와이드교회 담임)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교회